

이번 FOCUS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굴의 생산량을 파악하고 주요 생산국의 교역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FAO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전 세계 굴 생산량, 455만 톤 규모

- 전 세계 굴 생산량은 454만 9,819톤(2007년 기준)이며, 그 중 양식산 굴이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1980년대에는 굴 생산량의 30%를 점하던 자연산 굴의 비중이 2000년 이후 6% 이하로 급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굴 생산량 추이〉



중국, 전 세계 굴 생산의 77%

- 2007년 기준 굴 생산국은 50여 개국이 있으며, 그 중 중국이 전체의 77.3%인 350만 8,934톤을 생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7.7%), 일본(4.4%), 미국(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비중은 연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1980년대는 중국(23.3%), 미국(20.2%) 등 주요 생산국들의 비중이 유사했지만, 1990년 이후 중국의 생산비중이 전체의 64.7%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한국, 일본의 생산 비중은 1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굴 생산 생산량〉

(단위 : 만톤,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6년	2007년
총생산량	129(100.0)	258(100.0)	384(100.0)	438(100.0)	453(100.0)
중 국	30(23.3)	167(64.7)	290(75.5)	340(77.6)	350(77.3)
한 국	23(17.8)	22(8.5)	19(4.9)	31(7.1)	35(7.7)
일 본	25(19.4)	22(8.5)	22(5.7)	20(4.6)	20(4.4)
미 국	26(20.2)	19(7.4)	24(6.3)	18(4.1)	19(4.2)
기 타	25(19.4)	28(10.9)	29(7.6)	29(6.6)	2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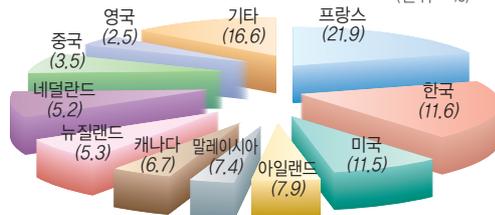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생산 비중을 나타냄
자료 : FAO(http://www.fao.org/)

굴 최대 수출국은 '프랑스', 수입국은 '이태리'

- 전 세계에서 굴을 수출하는 국가는 48개국이고 수출액 규모는 1억 8,931만 달러이며, 수출량은 4만 1,437톤이다. 이 중 최대 굴 수출국은 프랑스(21.9%)이며, 한국(11.6%), 미국(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자국 소비량이 많아 수출은 생산량의 0.4%에 불과하였다.
- 전 세계에서 굴을 수입하는 국가는 100여 개국이 있으며 수입액 규모는 1억 8,383만 달러이며, 수입량은 3만 9,528톤이다. 이 중 굴 최대 수입국은 이태리(18.7%)이며, 미국(11.3%), 프랑스(10.0%), 중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 비중〉

(단위 : %)



주 : 총 수출량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FAO(http://www.fao.org/)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 비중〉

(단위 : %)



주 : 총 수입량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FAO(http://www.fao.org/)

굴 수산물관측

제172호 | 2009년 9월

2009년 9월 7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강종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주요 양식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동향 등 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산 굴 시설량 작년산보다 증가할 듯 2009년산에 비해 9% 정도 늘어날 듯

- ▶ 2010년산 수하식 굴의 시설량은 2009년산보다 9% 정도 증가한 2,237만 연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난 어기 높은 굴 가격의 영향으로 시설량을 늘린 어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굴의 양성상태와 채묘상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산 굴은 경남의 경우 9월 중순, 전남의 경우 10월 중순 경부터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 8월 수출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45%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용 굴 가공품의 재고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수출량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 9월 생산량은 어기 초에 주로 생산되는 월하연의 감소로 작년 동월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월 산지가격은 작년 및 예년 동월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표본어가 조사 기간은
9월 22일(화)~25일(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산동향

2010년산 굴 시설량 작년산보다 증가할 듯
월하 시설량은 작년에 이어 감소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생산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10년산 굴 시설량, 2009년산보다 9% 정도 증가할 듯

- 2010년산 굴 시설량은 2,237만 연으로 작년산보다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8년산에 비해서도 4.2% 많은 양이다. 월하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원인은 지난 어기 굴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 어가들이 2010년산 어기에도 평년보다 굴 가격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경남의 경우 작년산에 비해 9.0% 증가한 1,772만 연, 전남은 8.0% 증가한 403만 연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통영에서 시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한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지난 두 어기동안 생산이 미미했던 충남의 경우 어장정비 및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어감에 따라 지난 어기에 비해 시설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산 굴 시설량(5m 기준 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

구 분	2008년산	2009년산	2010년산	작년산 대비		지역별 비중
				증감	증감률	
전 국	2,147	2,054	2,237	183	8.9	100.0
경 남	1,670	1,626	1,772	146	9.0	79.2
전 남	394	373	403	30	8.0	18.0
기 타	83	55	62	7	13.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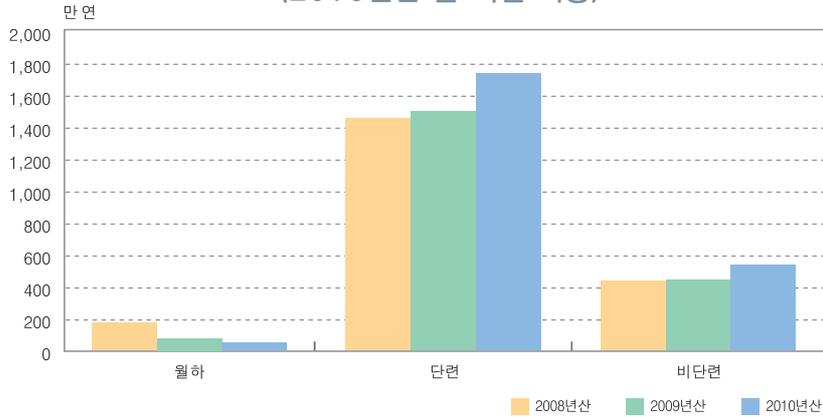
주 : 1) 수하연 길이를 5m로 표준화 한 것임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2010년산 굴 시설 비중, 월하연은 감소하고 단련산 크게 늘어날 듯

- 2010년산 굴 시설 비중을 보면 작년에 이어 단련산과 비단련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단련산의 경우 전체 시설량에 대한 비중이 75.7%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시설량이 증가한데다 지난 어기 채묘상태와 단련산의 양성상태가 좋아 종패 수급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 한편 월하 시설량은 지난 어기 초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어기에 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양식 어가들이 월하시설분까지 채취하였기 때문이다.

※ 단련(鍛鍊) : 굴 유생을 일정기간 햇빛에 노출시켜 성장을 억제시키는 과정

〈2010년산 굴 시설 비중〉



굴 양식시설 설치는 대부분 완료, 양성상태는 양호

- 8월 말 현재, 굴 양식시설은 고흥, 진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다. 설치시기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 설치가 이뤄지는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남 통영의 일부 어가와 거제 지역에서는 시설을 연중수하(이모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여수의 경우 작년에 비해 설치기간이 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폐사를 줄이고자 고수온기를 피해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 굴의 양성상태는 강수량이 많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해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상태가 예년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굴 양식시설 설치시기 및 양성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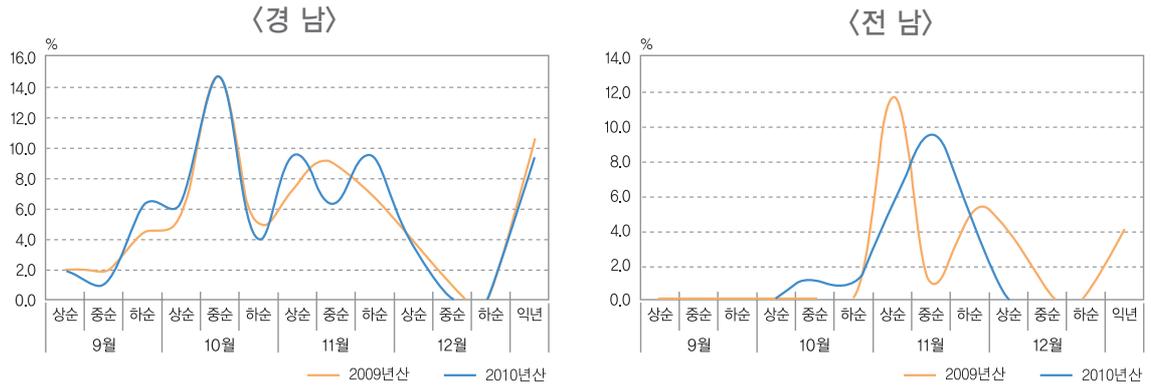
구 분	양식시설 설치시기								양성상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폐사	성장	
통영									○	○
고성									○	○
거제									○	○
남해									△	△
여수									○	○
고흥									○	○
진도									○	○
완도									○	○
서산									○	○

주 : 1) ■는 2009년, ■는 2008년
 2)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2010년산 굴 생산시기 작년보다 약간 빨라질 듯

- 2010년산 시설의 첫 생산시기는 경남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9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남은 조금 빨라진 10월 중순경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어가들이 지난 어기의 높은 가격 수준을 올 어기초에도 기대했기 때문이다.

〈2010년산 굴 첫 생산시기 의향조사 결과〉



채묘상태,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

- 2011년산에 영향을 주는 채묘상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 및 예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영 및 남해의 일부 지역에서 부착상태가 다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굴 채묘는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통영과 고성에서는 일찍 채묘가 시작되었다.

〈굴 채묘시기 및 채묘상태〉

구 분	채묘시기									채묘상태	
	6월			7월			8월			작년대비	예년대비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통영		■	■	■	■					비슷	좋음
고성			■	■		■				좋음	좋음
거제		■	■	■	■	■	■			비슷	좋음
남해		■	■							비슷	비슷
여수	■	■	■							좋음	좋음
진도				■	■					좋음	비슷
완도				■	■	■				좋음	좋음
서산						■	■			좋음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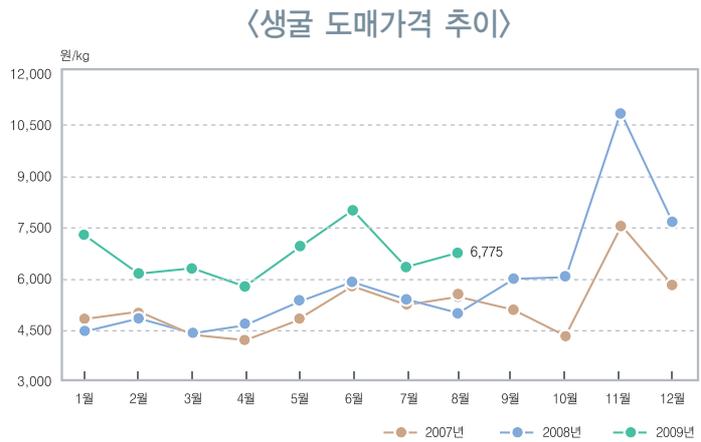
주 : ■는 2009년, ■는 2008년

가격동향 8월 도매가격, 작년 동월대비 32% 높은 수준

8월 산지가격은 수협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비자가격은 거래물량 부족으로 조사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이번 관측월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8월 도매가격, 작년 동월 대비 32% 높은 수준

- 노량진수산물시장의 8월 굴 도매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6.6% 상승한 kg당 6,775원이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2.2% 높은 수준이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kg당 8,030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8.2% 높은 수준이었다.



자료 : 노량진수산물시장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분	2008년	2009년			
	8월	7월	8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노량진수산물시장	5,125	6,353	6,775	6.6	32.2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6,265	8,043	8,030	-0.2	28.2

주 : 노량진수산물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

수출입동향 8월 굴 수출량, 작년 동월 대비 45% 감소

- 8월 굴 수출량은 640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7.0%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44.8% 적은 수준이었다.
- 제품별로는 냉동굴과 건조굴이 각각 46.1%, 49.1% 감소한 113톤, 90톤이었으나, 통조림은 45% 증가한 437톤이었다.
- 한편 8월까지의 2009년산 누적수출량은 8,961톤으로 작년 동기의 누적수출량보다 24.8% 적은 수준이었다. 이는 굴 가격의 상승으로 가공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습니다(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

〈굴 제품별 수출량〉

(단위 :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7월	8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알 굴	-	-	-	-	-
냉동굴	174	209	113	-46.1	-35.2
건조굴	189	177	90	-49.1	-52.3
통조림	796	301	437	45.0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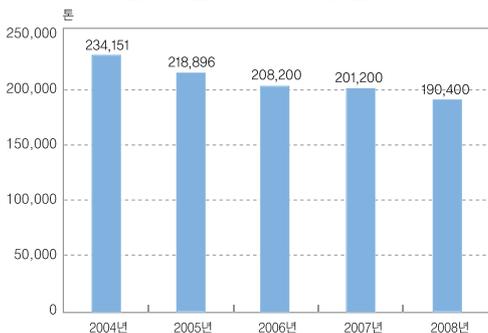
자료 : 상동

해외동향

일본 2008년 굴 생산량, 19만 톤(각굴 중량)수준

- 일본의 연간 굴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일본의 굴 생산량은 2007년에 비해 5.6% 줄어든 19만 400톤(각굴 중량)으로 이는 2008년 우리나라 굴 생산량(공식 통계 기준으로 24만 9,976톤)의 76.2% 수준이다.
- 2008년 일본의 주산지별 굴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히로시마(廣島)현이 전체 생산량의 5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야기(宮城)현 23.6%, 이와테(岡山)현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연도별 굴 생산량 추이〉



주 : 각굴 중량 기준임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연보』

〈일본의 주산지별 2008년 굴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생산량	비 중
전국	190,400	100.0
히로시마	96,800	50.8
미야기	45,000	23.6
이와테	14,100	7.4
오카야마	11,300	5.9
기타	23,200	12.2

생산 및 수출전망

9월 생산량 작년 9월보다 적을 듯,
산지가격은 높은 수준일 듯

9월 굴 생산량, 작년 동월보다 적을 듯

- 9월 생산량은 월하시설량 부족으로 작년 동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굴 산지가격, 작년보다 높은 수준일 듯

- 10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9월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9월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9월 굴 수출량, 8월보다 감소할 듯

- 9월은 통조림과 냉동굴의 수출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가공업체에서 보유중인 재고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8월보다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9월 1일~30일)

■ 9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과학원)

구분	동해 중남부	남해	서해 중남부
수온 분포	23~25°C	27~28°C	23~26°C
평년 대비	평년과 비슷	1°C내외 고온상	평년과 비슷

■ 9월의 기상전망(기상청)

구분	날씨	기온	강수량
상순	구름끼는 날이 많겠음.	평년(16~25°C)보다 낮겠음.	평년(45~91mm)과 비슷하겠음.
중순	맑은 날이 많겠음.	평년(14~23°C)보다 높겠음.	평년(29~92mm)보다 적겠음.
하순	구름끼는 날이 많겠음.	평년(12~22°C)과 비슷하겠음.	평년(22~66mm)보다 많겠음.